

‘광주’ 담은 광주비엔날레 지역소통 돋보여 ‘세월오월’ 전시 무산, 정부외압 밝혀져 분노

2016년 광주·전남 문화계 결산

1 미술

2016년 광주·전남 문화계에서는 지역 출신 소설가 한강의 ‘맨부커상’ 수상, 신안선 발굴 40주년 기념전, 2016 광주비엔날레 등 이야기거리가 풍성했다. 올 한해 지역 문화계 흐름과 현안을 미술, 공연, 문학, 문화재 등 4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문화전당과 손잡은 광주아트페어

5일간 9만명 방문 30억원 판매고

서울에 ‘광주·전남갤러리’ 문 열어

조선대 70년·에쵸고 50년 기념전



지난 9월 ‘2016 광주비엔날레’를 방문한 외국인 관람객이 3전시관에서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2016년 광주·전남 미술계 화두는 ‘소통’이었다. 광주를 소재로 한 비엔날레 작품들, 광주아트페어에 공간을 내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시·전남도 공동운영 ‘G&J 광주·전남갤러리’ 개관 등 다양한 협업시대가 엮여 있었다.

한편으로는 소문만 무성했던 위작·대작·전시 외압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많은 미술인들이 한숨지었다.

제11회 ‘2016 광주비엔날레’(9월2일~11월6일)는 광주에서 작업했거나 모티브를 얻은 작품들이 눈길을 끌었다.

가장 화제가 된 작품은 스페인 도라 가르시아 작가가 옛 녹두서점을 재현한 설치작 ‘녹두서점-산자와 죽은 자, 우리 모두를 위한’이었다. 녹두서점을 운영했던 김상운·정현애 부부 초청 이벤트도 관심을 모았다.

스페인 페르난도 가르시아 도리 작가는 한새봉 두레 주민들과 일곡동 개구리에서 연극 ‘도룡늬의 비탄’을 공연했다. 홍콩 애니 라이 군 완 작가는 광주에서 본 알록달록한 색채에서 모티브를 얻어 ‘오늘도 무지개’ 작품을, 덴마크 토미 스톡작가는 종이로 만든 ‘광주 돌’을 선보였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무등현대·외재·우재미술관 등으로 전시장을 확장한 점도 눈에 띄었다.

그밖에 지역 협업·교육 프로젝트 ‘월레회’, ‘인프라스쿨’, 포럼을 1년간 개최했으며 이중 ‘월레회’는 앞으로도 꾸준히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광주아트페어’(8월 24~28일)의



2014년 홍성담씨의 작품 ‘세월오월’ 전시무산에 정부 외압이 최근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가장 큰 특징은 예년까지 열렸던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벗어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한 점이다. 높은 접근성 덕에 5일간 약 9만명이 방문했으며 작품 판매액은 30억원(약 900점)에 달하는 등 문화전당이 오래간 만에 활기찬 분위기였다. 하지만 불편한 관람동선, 준비가 부족했던 VIP 초청 이벤트 등은 향후 보완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지난 9월 열렸던 ‘조선대학교 미술 70년’전은 1946년 9월29일 개교해 지난해까지 6388명 동문을 배출한 조선대 미술대학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였다. 동문, 교수 등 380명이 참여해 조선대미술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지난 1964년 창립한 비구상 미술그룹 ‘(사)에쵸고’도 지난 5월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전 ‘1964-2016 에쵸고 50년을 넘어서다’를 열었다.

지난 2015년부터 광주·전남 상생프로젝트로 추진했던 ‘G&J 광주·전남갤러리’가 지난 10월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에서 개관했다. 광주시립미술관과 전남문화관광재단이 운영을 맡아 2주일씩 번갈아 가며 각 지역 작가 대관 전시를 열고 1년에 2~3차례 공동 기획전을 연다는 계획이다.

시립미술관은 또 광주문화예술회관 부지에 위치한 옛 미술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사진전시관을 개관했다. 광주와 예술을 한눈에 보여주는 개관전 ‘노랑나비는 새벽에 날다’가 2017년 1월15일까지 열린다. 그밖에 작업 공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예술지원센터도 지난 10월 남구 사

직동에서 문을 열었다.

또한 이화갤러리, 갤러리 불(이상 예술의 거리), 소앳갤러리(남구 서동),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남구 양림동) 등 곳곳에 전시장이 새로 생겼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창작의 자유’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표적인 게 ‘세월오월’ 전시 무산이다. ‘2014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출품작이었던 홍성담 작가의 대형 걸개그림 ‘세월오월’ 전시 무산 배경에 정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지난 11월 알려지며 광주 미술계의 분노가 폭발했다. 운장현 시장은 11월15일 기자회견에서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제2차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으며, 그 영향이 있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특히 문제부가 지원사업 배제를 목적으로 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세월오월’ 논란까지 겹치며 날선 비판이 나왔다. 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에서는 지역에서 약 90명이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또 미술품 위작 논란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5년째 이어져 온 고흥 출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논란에 대해 지난 19일 검찰은 ‘진품’ 결론을 내리며 유족측과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유족측 요청으로 지난 11월 과학 검정을 진행하며 ‘사실상 위작’ 판정을 내린 프랑스 감정업체는 검찰 조사가 과학적이 못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유족측은 추가 법정 대응 계획을 밝혀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도라 가르시아 작 ‘녹두서점-산자와 죽은 자, 우리 모두를 위한’

인권·평화정신 담은 비엔날레 작품

5·18기록관 보존...광주에 남는다

인권과 평화정신을 담은 ‘2016 광주비엔날레’ 작품작들이 광주에 남는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스페인 도라 가르시아, 멕시코 예술가 집단 ‘코퍼라티바 크라티 인베르티도’, 르완다 출신 크리스티앙 니암페타 작품 일부가 5·18민주화운동기록관(기록관)에 보존된다고 밝혔다.

도라 가르시아는 비엔날레 당시 옛 녹두서점을 재현한 설치작 ‘녹두서점-산자와 죽은 자, 우리 모두를 위한’을 선보였다. 기록관에는 작품에 쓰였던 간판이 기증되며 추후 5·18 관련 전시와 기록 콘텐츠 프로그램에 활용될 예정이다.

‘코퍼라티바 크라티 인베르티도’ 멤버 6명은 한국과 멕시코 두 나라의 정치적·사회적 투쟁 내용을 담은 가상 이미지를 드로잉으로 제작해 전시했다. ‘아요치나 파 학생 대학살 사건의 정체불명의 살아있는 시체들’ 등 6점을 만날 수 있다. 크리스티앙 니암페타는 작품 구상을 위해 광주에 2주 간 머물렀다. 민주화운동 등 현상 리서치와 연구 과정 속에서 도출해 낸 필름작품 ‘참고자료’ 시리즈와 공동체를 표현한 가구 시리즈 ‘생존자들’을 기록관에 설치했다. 작가는 작품에 활용했던 테이블을 광주에 남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해자 개인전 28일까지 무등갤러리

정감어린 일상 속 풍경을 수채화로 표현하고 있는 김해자 작가가 28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첫번째 개인전을 연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 수채화 작품 30여점을 선보인다. 작품들은 여느 그림처럼 아름다운 자연이나 인물이 아닌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누구나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는 풍경을 통해 추억을 다시 상기시킨다.

‘정박’ 연작은 부뚜막에 앉아 담배를 피고 있는 아저씨가 소재이거나 타이어를 돌려 맨 바퀴에 등장한다.

시골집 뒷마루에 앉아 있는 삼살개를 그린 ‘함수’, 귀를 종긋 세우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진돗개를 담은 ‘기다림’은 정겨운 고향 모습이다. 그밖에 ‘묵련’, ‘해바라기’, ‘국화’ 등 다수 꽃 작품과 ‘무등산 서석대’, ‘크레라의 미소’를 출품했다.



‘꽃감’

김씨는 광주미술대전 특선, 전남미술대전 특선 등 다수 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청빛바라기 회원, 광주미술협회 회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36-252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박광식·양계남·김재일·하철경·김병모·정 철·김효삼·박은수·고희자·신은하·한갑수·장규오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12인 초대전

“문화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기간: 2016. 12. 23(금) ~ 2017. 1. 23(월)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M갤러리

세계조각·장식박물관 ☎ (062) 222-0072 (예술의거리 서문입구)

KGC Korea Golf Coop 대한골프협동조합

대한골프협동조합과 함께 골프, 리조트 한번에 다 누리세요!!

회원가입 절차
*신청서 작성 (팩스, 카톡, 문자 가능)
*년회비 (130,000원)

회원가입 혜택
*제휴 골프장 및 리조트 할인혜택
*제휴 골프용품 할인혜택
*국내, 해외 골프투어

대한골프협동조합
골프장 선불회원 컨설팅 사업
국내외 골프투어
지역사회 공헌사업
골프동호회 육성/골프장나무 지원

국내 최초 골프협동조합 탄생!!
보성CC, 디오션, 함평엘리체, 제주, 고창

레저 이용혜택!!
엘도라도리조트, 무주토비스콘도, 서해안변산, 서해안대천, 담양메타펜션, 제주골프필, 화순, 속초, 제주, 충무 금호리조트

KGC 대한골프협동조합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8(치평동 890-12) ☎ (062) 371-1800 · 010-6270-1879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교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 061-392-2114